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

장동민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과정)*

전인오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김종열(주식회사 에스엠비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원장)***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로 분리하여 직장인을 상대로 외식 선호일에 대한 설문을 구하고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소득수준과 외식 선호일, 가족구성과 외식 선호일을 가족과의 외식과 친구들과의 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 모두,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차이 불문하고 모두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에서는 가족과의 외식보다 친구들과의 외식에 대한 주중 선호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족구성 형태에 따라 가족 및 친구 외식시는 독신자, 부부가족 및 기타 모두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선호 비율에서는 친구와 외식 시 주중 선호 비율이 월등히 높아 직장인은 주로 가족은 주말, 친구는 주중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로자의 외식 소비 행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그 선호 비율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가족과 외식시 주말, 친구와 외식시는 주중으로 선호 비율이 주6일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외식선호

1. 서 론

주5일 근무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중심축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관광·레저산업의 성장, 근로 형태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 제1저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과정, dmjang@hustee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ric@hoseo.edu

*** 공동저자, (주)에스엠비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원장, jrykim@unitel.co.kr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여가유형이 확대되고 여가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와 여가생활(여가참여, 여가만족) 및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주5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여가생활과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여가 생활변화, 직무만족, 가족생활 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외식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5일 근무제가 2003년 시범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직장인의 사회, 문화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삶의 질 향상”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궁극적 목표임과 동시에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식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무제 형태 변화가, 즉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의 이동이 주중·주말 간 가족, 친구, 직장동료간의 외식패턴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와 더불어 어떤 패턴변화가 있다면 이를 외식산업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현시점에서 시행 초기 예상했던 각종 변화 중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어떤 변화가 과연 왔는가? 또한 이 변화는 어떻게 외식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향후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도구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2003년 주5일 근무제가 시범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의 하나는 이른바 브런치 식당의 확산이다. “한국인들이 ‘아침겸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미국스타일의 브런치 식당이 200여개나 되고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의 주인공처럼 생활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달라진 풍속도”는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다. 평소엔 직장생활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를 주말 낮 시간대에 한가롭게 만나 브런치 식사를 먹으며 여가를 보내는 경우, 토요일 낮이면 오전 일찍 인근 백화점에서 쇼핑을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브런치 식당을 찾은 여성 증가 등은 브런치 식당의 확산의 여러 요인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런치 식당의 확산의 결정적 계기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이다. 주5일제의 영향으로 주말 개념이 토·일요일에서 금·토·일요일로 바뀐 뒤 가족 단위의 모임이 많아졌고 저녁

술자리 모임이 줄었기 때문이다. 회식이나 접대문화의 변화도 이를 대변한다. 바이어를 만나거나 거래처 사람과 식사할 때 저녁보다 부담 없는 점심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래 브런치(brunch=breakfast+lunch)는 미국에서 시작된 말로 늦은 아침 식사를 뜻한다. 국내 식당들의 브런치 메뉴 타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주말 정오 이후에 “늦은 점심”을 들면서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브런치를 즐기는 시간대가 길어졌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 내용을 조사해 보면, 이운지(2002)의 연구에서는, 첫째 당시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 간의 여가활동에 따른 외식 패턴에서 우선 여가활동에 있어서 전체 비율은 문화활동, TV 감상, 가사/집안정리, 수면/독서의 순으로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 간의 여가활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두 집단 모두 외식을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에서 여가활동 시에도 두 집단 간 근무 형태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집에서 조리한다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상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주6일 근무자 간의 당시 여가 패턴과 외식패턴에는 주6일 근무자의 외식횟수의 변화 외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로 외식패턴에 대한 분석으로 음식점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으로서 결혼 여부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의 경우 기혼보다 테마레스토랑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혼의 경우 호텔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로는 월수입, 연령별, 결혼여부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업소에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주말고객을 위한 할인행사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띤 문화/레저를 연계한 서비스보다 아직까지 저렴한 식사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 하고 싶은 음식점으로는 분위기/서비스 좋은 곳 보다는 맛있는 곳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 외식성향은 점점 주문배달, 반 조리식품, 인스턴트 제품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당 선택에 있어서도 한식당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외식의 성향이 고급화, 간편화, 편리화, 서구화 되어 간다고 주장 하고 있다.

장대성(2003)의 연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이후 외식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 있던 상권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기존 상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동시에 신규상권을 창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심의 기존상권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6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매주 목, 금요일이 주변 외식업체의 피크타임(peak time)이었으며, 토요일에도 중식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피크타임도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옮겨가고 토요일에는 아예 점포 문을 열지 않는 업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과거 6일간의 매출에서 5일간의 매출로 줄어들므로써 수

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박정연(2006)의 연구결과를 보면 세대별 외식 횟수가 월 5-10회 정도로 많았고, 외식비용으로는 2만-3만원 정도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외식목적으로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 “친구와 동료들과의 맛있는 음식을 접하기 위함”이란 응답이 대다수였다. 또한 한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주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외식선택 속성을 보면 “음식맛”에 있어서 미혼자의 경우 맛을 더욱 중요시 여겼다. 또한, 메뉴의 영향 및 건강 면에서는 미혼자가 더욱 고려하였고 점포의 지명도나 평판은 미혼자가 더욱 고려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0대와 40대가 음식의 맛을 우선순위로 하였으며 30대는 음식의 양을 중요시 하였다. 편리한 주차장과 교통수단은 20대가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기술직 일수록 음식의 양과 다양한 메뉴를 선호 하였다. 중고 소득층 일수록 편리한 주차 시설과 교통 시설을 중요시 하였고, 주5일 근무제 일수록 더욱 중요시 여겼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점포 분위기나 인테리어에 치중 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일수록 여가시설, 다양한 메뉴, 화려한 인테리어 등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고소득층 일수록 자기 과시적인 면모가 다분히 들어 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외식정보 등의 대중매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정보의 경우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을 통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식업 자체의 구전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사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III. 자료 수집

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설문지의 구성은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의 요일별 외식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식 동반자로 판단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유형에 따라 그 선호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하였다.

설문응답은 우선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 형태를 묻고 이후 외식 주체별 주중, 주말 선호도를 확인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소득수준은 연간 동거가족 포함 4천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설문 하였으며, 가족구성 형태는 독신, 부부, 기타로 구분 설문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동반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척도
근무제 형태		1-2	2문항	등간
외식소비 행동	가족	3-7	5문항	등간
	직장동료	8-12	5문항	등간
	친구	13-17	5문항	등간
향후 외식패턴 전망		18-21	4문항	명목
인구통계학적 특성		22-28	7문항	명목

3.2 자료 수집 방법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 주5일제가 도입 실시되고 있는 동일 대상을 놓고 주5일 근무제 도입 전후의 상황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장인과 주6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을 별개의 대상으로 하여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의 외식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5일 및 주6일 근무자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5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인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대상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 240명, 주6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 231명 총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성	245	52
	여 성	226	48
연 령	20 대	113	24
	30 대	198	42
	40 대	141	30
	50대 이상	19	4
학 력	고등학교 졸업/중퇴	28	6
	전문학교 졸업/중퇴	94	20
	대학교 졸업/중퇴	226	48
	대학원 이상	123	26
가족 구성 형태	독 신	80	17
	부 부	88	19
	기타	303	64
직장경력	2년 미만	47	10
	2년 이상-5년 미만	90	19
	5년 이상-10년 미만	146	31
	10년 이상	188	40
가족 수입	4천만원 미만	282	60
	4천만원 이상	189	40
합 계		471	100

IV. 검증결과

4.1 자료의 분석방법

설문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득수준과 외식 선호일, 가족구성과 외식 선호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표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교차표 상의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차표로 정리된 두 범주형 변수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이다. 교차분석에 사용되는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일명 카이제곱분석(chi-square analysis)이라고 한다.

교차표는 우선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로 구분하고, 각 구분 내에서 소득수준과 외식 선호일, 가족구성과 외식 선호일의 범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SPSS 15.0을 활용하여 확률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주5일 근무제하의 검정결과

4.2.1 케이스 요약

<표 3>에는 케이스 처리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차표에 사용된 유효 케이스와 결측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요약에 따르면 전체 케이스 240케이스 중 결측 케이스는 없으며, 모두가 유효한 케이스임을 알 수 있다.

<표 3> 케이스 처리 요약(주5일)

유효 케이스		결측 케이스		전체 케이스	
빈도	%	빈도	%	빈도	%
240	100.0%	0	0.0%	240	100.0%

4.2.2 교차분석 결과

<표 4>는 주5일 근무제 하에서 응답자의 소득수준과 가족과 외식시 어느 일자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선호일을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하여 교차표로 정리·분석한 “소득수준과 가족외식 선호일간의 관계 교차분석표”이다. 먼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전체의 54.2%인 130명이 고 이중 48명(36.9%)은 주말을 선호하고 82명(63.1%)은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 4천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전체의 45.8%인 110명으로 이중 37명(33.6%)은 주말을 선호하고 73명(66.4%)은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득수준*가족외식 선호일 간 교차분석표(주5일)

구 분		가족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	빈도	48	82	130	
		기대빈도	46.0	84.0	130.0	
		소득수준의 %	36.9%	63.1%	100.0%	
		선호일의 %	56.5%	52.9%	54.2%	
			전체의 %	20.0%	34.2%	54.2%
	4천만원 이상	빈도	37	73	110	
		기대빈도	39.0	71.0	110.0	
		소득수준의 %	33.6%	66.4%	100.0%	
선호일의 %		43.5%	47.1%	45.8%		
		전체의 %	15.4%	30.4%	45.8%	
총 계	빈도	85	155	240		
	기대빈도	85.0	155.0	240.0		
	소득수준의 %	35.4%	64.6%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35.4%	64.6%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8.141, 자유도=1, 유의수준=0.0495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38.96임

다음으로 가족외식 선호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5.4%인 85명이고 이 중 56.5%는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43.5%는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응답자 또한 전체의 64.6%인 155명이고 이 중 52.9%는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47.1%는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5> 소득수준*친구와 외식 선호일 간 교차분석표(주5일)

구 분		친구와 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	빈도	12	118	130
		기대빈도	12.5	117.5	130.0
		소득수준의 %	9.2%	90.8%	100.0%
		선호일의 %	52.2%	54.4%	54.2%
		전체의 %	5.0%	49.2%	54.2%
	4천만원 이상	빈도	11	99	110
		기대빈도	10.5	99.5	110.0
		소득수준의 %	10.0%	90.0%	100.0%
		선호일의 %	47.8%	45.6%	45.8%
		전체의 %	4.6%	41.3%	45.8%
총 계	빈도	23	217	240	
	기대빈도	23.0	217.0	240.0	
	소득수준의 %	9.6%	90.4%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9.6%	90.4%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5.069, 자유도=1, 유의수준=0.040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10.54임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240명의 응답자 중에서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인면서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20.0%이고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34.2%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 4천만원 이상인면서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15.4%이고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30.4%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케이스 수는 240으로서 상당히 크다. 그리고 도표 아래 2)의 내용을 보면 기대빈도가 38.96이므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차표에 있는 전체 셀의 개수 중 25% 이상에서 기대빈도가 5 미만의 값이 나오면 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케이스의 데이터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표 아래 1)의 내용을 보면,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8.141이고,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로서 검정통계량(χ^2)은 8.141, 유의확률은 0.0495로서 유의수준($p < 0.05$)보다 작다. 따라서 본 교차표 상에서의 소득수준과 가족외식 선호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6> 가족구성*가족외식 선호일 간 교차분석표(주5일)

구 분		가족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가족구성	독신자	빈도	11	30	41
		기대빈도	14.5	26.5	41.0
		가족구성의 %	26.8%	73.2%	100.0%
		선호일의 %	12.9%	19.4%	17.1%
	부부가족	빈도	23	26	49
		기대빈도	17.4	31.6	49.0
		가족구성의 %	46.9%	53.1%	100.0%
		선호일의 %	27.1%	16.8%	20.4%
	기타	빈도	51	99	150
		기대빈도	53.1	96.9	150.0
		가족구성의 %	34.0%	66.0%	100.0%
		선호일의 %	60.0%	63.9%	62.5%
총 계	빈도	85	155	240	
	기대빈도	85.0	155.0	240.0	
	가족구성의 %	35.4%	64.6%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35.4%	64.6%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5.297, 자유도=2, 유의수준=0.012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14.52임

<표 7> 가족구성*친구와 외식 선호일 간 교차분석표(주5일)

구 분		친구와 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가족구성	독신자	빈도	5	36	41
		기대빈도	5.9	35.1	41.0
		가족구성의 %	2.4%	97.6%	100.0%
		선호일의 %	4.3%	18.4%	17.1%
	부부가족	빈도	8	41	49
		기대빈도	5.7	43.3	49.0
		가족구성의 %	18.4%	81.6%	100.0%
		선호일의 %	39.1%	18.4%	20.4%
	기타	빈도	10	140	150
		기대빈도	14.4	135.6	150.0
		가족구성의 %	8.7%	91.3%	100.0%
		선호일의 %	56.5%	63.1%	62.5%
총 계	빈도	23	217	240	
	기대빈도	23.0	217.0	240.0	
	가족구성의 %	9.6%	90.4%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9.6%	90.4%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6.924, 자유도=2, 유의수준=0.031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5.93임

같은 요령으로, <표 5>는 소득수준과 친구와의 외식 선호일간의 관계를, <표 6>은 가족구성과 가족외식 선호일 간의 관계를, <표 7>은 가족구성과 친구와의 외식선호일 간의 관계를 각각 정리·분석한 교차분석표이다.

4.3 주6일 근무제하의 검정결과

4.3.1 케이스 요약

<표 8>에는 케이스 처리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차표에 사용된 유효 케이스와 결측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요약에 따르면 전체 케이스 231케이스 중 결측 케이스는 없으며, 모두가 유효한 케이스임을 알 수 있다.

<표 8> 케이스 처리 요약(주6일)

유효 케이스		결측 케이스		전체 케이스	
빈도	%	빈도	%	빈도	%
231	100.0%	0	0.0%	231	100.0%

4.3.1.1 교차분석 결과

<표 9>는 주6일 근무제 하에서 응답자의 소득수준과 가족과 외식시 어느 일자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선호일을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하여 교차표로 정리·분석한 “소득수준과 가족외식 선호일간의 관계 교차분석표”이다. 먼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전체의 65.8%인 152명이고 이 중 62명(40.8%)은 주말을 선호하고 90명(59.2%)은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 4천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전체의 34.2%인 79명이고 이 중 23명(29.1%)은 주말을 선호하고 56명(70.9%)은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외식 선호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6.8%인 85명이고 이 중 72.9%는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27.1%는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응답자 또한 전체의 63.2%인 146명이고 이 중 61.6%는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38.4%는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9> 소득수준*가족외식 선호일 교차표(주6일)

구 분		가족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	빈도	62	90	152
		기대빈도	55.9	96.1	152.0
		소득수준의 %	40.8%	59.2%	100.0%
		선호일의 %	72.9%	61.6%	65.8%
		전체의 %	26.8%	39.0%	65.8%
	4천만원 이상	빈도	23	56	79
		기대빈도	29.1	49.9	79.0
		소득수준의 %	29.1%	70.9%	100.0%
		선호일의 %	27.1%	38.4%	34.2%
		전체의 %	10.0%	24.2%	34.2%
총 계	빈도	85	146	231	
	기대빈도	85.0	146.0	231.0	
	소득수준의 %	36.8%	63.2%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36.8%	63.2%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7.047, 자유도=1, 유의수준=0.038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29.07임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231명의 응답자 중에서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이면서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26.8%이고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39.0%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주말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10.0%이고 주중외식을 선호하는 자는 24.2%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케이스 수는 231으로서 상당히 크다. 그리고 도표 아래 2)의 내용을 보면 기대빈도가 29.076이므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케이스의 데이터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표 아래 1)의 내용을 보면,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7.047이고,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로서 검정통계량(χ^2)은 7.047, 유의확률은 0.038로서 유의수준($p < 0.05$) 보다 작다. 따라서 본 교차표 상에서의 소득수준과 가족외식 선호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일한 요령으로, <표 10>은 소득수준과 친구와의 외식 선호일간의 관계를, <표 11>은 가족구성과 가족외식 선호일 간의 관계를, <표 12>는 가족구성과 친구와의 외식선호일 간의 관계를 각각 정리·분석한 교차분석표이다.

<표 10> 소득수준*친구와 외식 선호일 교차표(주6일)

구 분		친구와 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	빈도	17	135	152
		기대빈도	17.1	134.9	152.0
		소득수준의 %	11.2%	88.8%	100.0%
		선호일의 %	65.4%	65.9%	65.8%
	4천만원 이상	빈도	9	70	79
		기대빈도	8.9	70.1	79.0
		소득수준의 %	11.4%	88.6%	100.0%
		선호일의 %	34.6%	34.1%	34.2%
총 계	빈도	26	205	231	
	기대빈도	26.0	205.0	231.0	
	소득수준의 %	11.3%	88.7%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11.3%	88.7%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8.256, 자유도=1, 유의수준=0.030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8.89임

<표 11> 가족구성*가족외식 선호일 교차표(주6일)

구 분		가족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가족구성	독신자	빈도	13	26	39
		기대빈도	14.4	24.6	39.0
		가족구성의 %	33.3%	66.7%	100.0%
		선호일의 %	15.3%	17.8%	16.9%
	부부가족	빈도	15	24	39
		기대빈도	14.4	24.6	39.0
		가족구성의 %	38.5%	61.5%	100.0%
		선호일의 %	17.6%	16.4%	16.9%
	기타	빈도	57	96	153
		기대빈도	56.3	96.7	153.0
		가족구성의 %	37.3%	62.7%	100.0%
		선호일의 %	67.1%	65.8%	66.2%
총 계	빈도	85	146	231	
	기대빈도	85.0	146.0	231.0	
	가족구성의 %	36.8%	63.2%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36.8%	63.2%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6.144, 자유도=2, 유의수준=0.049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14.35임

<표 12> 가족구성*친구와 외식 선호일 교차표(주6일)

구 분		친구와 외식 선호일		총 계	
		주말	주중		
가족구성	독신자	빈도	9	30	39
		기대빈도	5.4	33.6	39.0
		가족구성의 %	23.1%	76.9%	100.0%
		선호일의 %	34.6%	14.6%	16.9%
		전체의 %	3.9%	13.0%	16.9%
	부부가족	빈도	4	35	39
		기대빈도	5.4	33.6	39.0
		가족구성의 %	10.3%	89.7%	100.0%
		선호일의 %	15.4%	17.1%	16.9%
		전체의 %	1.7%	15.2%	16.9%
	기타	빈도	13	140	153
		기대빈도	17.2	135.8	153.0
		가족구성의 %	8.5%	91.5%	100.0%
		선호일의 %	50.0%	68.3%	66.2%
		전체의 %	5.6%	60.6%	66.2%
총 계	빈도	26	205	231	
	기대빈도	26.0	205.0	231.0	
	가족구성의 %	11.3%	88.7%	100.0%	
	선호일의 %	100.0%	100.0%	100.0%	
	전체의 %	11.3%	88.7%	100.0%	

주: 1) Pearson의 카이제곱(χ^2) 값=6.661, 자유도=2, 유의수준=0.036
 2) 5이하의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으며, 최소기대빈도는 5.39임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로 분리하여 직장인을 상대로 외식 선호일에 대한 설문을 구하고 설문 결과 토대로 소득수준과 외식 선호일, 가족구성과 외식 선호일을 가족과의 외식과 친구들과의 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는 첫째 주5일 근무제의 경우는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에서는 주로 주중을 선호하고 소득수준 4천만원 이상에서도 역시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 모든 계층에서 주중을 선호하지만 그 비율에서는 친구와 외식 시 주중 선호비율이 월등히 많다.

가족구성 형태에 따라 가족 및 친구 외식 시는 독신자인 경우는 주로 주중을 선호하고 부부가족 및 기타 응답자 역시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선호 비율에서는 친구와 외식 시 주중 선호 비율이 월등히 높아 주5일 근무제 직장인

은 주로 가족은 주말, 친구는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6일 근무제의 경우는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4천만원 미만에서는 주로 주중을 선호하고 4천만원 이상에서도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형태와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는 독신자인 경우는 주로 주중을 선호하고 부부가족 및 기타 응답자 역시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선호 비율에서는 친구와 외식 시 주중 선호 비율이 높아 주6일 근무제 직장인은 주로 가족은 주말, 친구는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로자의 외식 소비 행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그 선호 비율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가족과 외식시 주말, 친구와 외식시는 주중으로 선호 비율이 주6일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시범 실시부터 점차 회사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되어 온 주5일 근무제가 외식산업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행동에 따른 외식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시사점으로는 첫째, IMF 환란 극복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중산층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부유층을 겨냥한 브런치 식당의 확산을 가져왔다. 따라서 브런치 식사를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외식산업의 기회 요인이라 판단되며, 둘째, 직장인들은 소득수준,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구와 비교시 주로 주말은 가족, 주중은 친구와 외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산업에서는 요일별 마케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장인의 외식소비 행동에 관해 연구를 하였으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직장인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전업주부, 사업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주5일 및 주6일 근무 형태별 동일 근로자의 외식소비 행동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해석에 다소 유의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브런치 식당의 주 고객층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요일별 차별화 마케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류재숙 · 박연옥 · 이승곤(200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 『관광연구저널』, 제19권, 제1호, pp.31-47.
- 박정연(2006),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지(200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소비자 외식성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대성(2003),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외식 동기 및 외식업체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해 · 김순홍 · 조지현(2005), 『통계자료분석』, 광주: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Kraus, R.(1971), *Recreation &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 Appletion-Centry-Crofts.
- Brightbill, C. K.(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New York: Prentice-Hall.
- Nash, J. B.(1953), *The Philosophy of Recreation and Leisure*, Saint Louis: C. V. Mosby Company.
- Kando, T.(1975) *Leisure and Popular Culture in Transition*, Sain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 Parker, S. R.(1976),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Pantheon Books.
- Brightbill, C. K. (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New York: Prentice-Hall.

A Study in Food Service Consumption Behavior of Company Workers

Jang, Dong Min* · Jeon, In Oh** · Kim, Jong Ryeol***

Abstract

A 5 days working system and a 6 days working system will be put in force at a food service consumption behavior of company workers. As a 5 days working system have adopted company, which the number of employee is more than 50, from July 1,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in food service consumption behavior of company workers.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only way of surviving in current society to analyze the change of social situation and actively cope with the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restaurant industries, they have to be equipped with a great store of experience and skill, theory and practical business, pertinent and rapid disposal.

Consequently,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objective and practical knowledge for the restaurant industries trend by having a through grasp of the need of consumer and their propensity to consume.

In order to study motives of eating-out and restaurants selection, office workers, who liv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re interviewed. The period of interview is from Oct 1 to Nov 20, 2007.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terview, The most workers prefer to eating-out on week with family and friends. But family is eating-out the more preference to weekend compare to friends. And it is deduced that restaurant near tourist resorts or outside the city rather than in downtown will be prosperous with this result. That is to say, workers go out to eat delicious food regardless of traffic problem

* The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 CEO, SMB Research Institute Co., Ltd.

and distance,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the car holding.

This paper is worthy of notice in terms of trying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 working system and the restaurant industries development. In after research, I expect the more synthetic and deeper study should be made though the more technical methods.

Keywords: 5 days working system, 6 days working system, food service industry